#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본 가야 고분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조 윤 재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고구려와 가야의 고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문 자체가 애초에 쉽지 않은 주제이다. 사실 토론자도 몇 해전 이러한 주문을 받고 난감해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사례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비교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문 받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발표자의 고충을 십분 동감하며 몇 가지 질문을 통한 共論이 더욱 전향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토론을 대신하려 한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사례에서 보이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복기를 통해 가야고분 유산등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몇 가지 追記하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고구려고분의 벽화, 왕성, 광개토대왕비의 명문, 대상유적 소재 공간의 특수성(북한 및 중국) 등은 유산등재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와 의의를 얻어내었다. 가야고분의 경우 이와는 다른 성격과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표자께서는 본문에서 고구려고분과 가야고분의 가치비교를 통해 가야고분의 탁월성 및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고구려의 사례에서 보이는 고분 이외의 가치 외에 부각되어야할 가야고분의 추가적 요소는 어떠한 것으로 보시는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2. 고구려고분의 유산등재 과정에서 국내성과 환도산성으로 대표되는 도성축조체계는 이후 고구려 정권의 도성축조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구려고분도 이후 출현하는 석실묘와 봉토묘의 선행문화로서 그 전승과 계통의 연속성이 선명하게 표출되었다. 이 또한 등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목으로 알고 있다. 가야고분의 경우 상장의 단계적 발전 양상 외에 입지 및 축조상의 경관적 고유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야고분의 경관을 통해 이러한 매장습속, 순장의 관념 등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경청하고자 한다.

3. 중국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사례에서 보이는 몇 가지 斷想

1) 명청황릉 유산등재 추진과정의 전략적 접근-분산된 明淸皇家陵寢의 대상유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북성 일대의 청대 황릉과 호북성의 명대 황릉에 대한 등재추진을 일차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명청황릉의 지속적인 확장등재에 대한 근거와 전례를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가야고분의 유산등재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2) 명청활릉 유산등재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유네스코 전문가 평가단과 중국 국무원 산하 평가단의 공통된 지적사항은 명효릉 구역내에 과도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다. 세계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인 진정성과 완정성의 확보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후세의 연구 성과 및 역대 문헌기재에 의거한 일률적 복원 내지 복구는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가야고분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학술적 고증 및 판단에 대한 최대한의 객관성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경관과 유적자체의 현재성을 보여줄 밑그림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명청황릉 유산등재의 진정성과 완전성 부각-진정성과 완전성에는 대상유산의 전승과정에서 당해 사회의 인식과 노력이 보호와 보수에 얼마나 투영되었는가하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명효릉의 등재신청 보고서에는 이 대목에 관한 강조와 부각이 돋보인다. 특히 중국 역대 왕조의 황릉에 대한 보존 및 보수의 노력을 문헌기록으로 現示하였다.

현재로서는 가야고분의 보존에 관한 시대적 역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해내야 하는 것도 당위적인 과업이다. 관련 인력의 증원, 전문가들의 유기적 결합, 유산등재 추진과정에서 달성되는 관련지표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한 대안개발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야고분 자체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전략적 접근과 모색에 대한 논의”와 함께 2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가 유리되거나 이격된다면 등재추진에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단에서는 쌍방의 호환적 소통효과를 구하기 위해 교차성을 가진 옵저버 패널의 인재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드린다. 혹 토론자의 寡聞으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이미 이와 관련된 복안이 생성되었다면 이 제안은 재론할 바가 아니며 아울러 반가운 일이다.